

社說

통일독일 우리의 모델 아니다

경기침체, 정치적 불안정, 국유기업의 확산, 통일 4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독일의 모습이다. 4년전 서독은 자본에 의한 동독의 흡수를 통해 통일을 맞이하였다. 심각한 동독의 경제적 빈곤에서 그로써 파안은 독일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3백 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2천 7백 50억 마르크의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이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의 증대 등은 독일의 경제를 악순환의 연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천년까지 동서독의 생활수준을 동등화 시키는데 필요한 통일 비용이 2조 마르크에 이를 것이라고 그들은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경제 불안정은 기존 정치에 대한 반발과 무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체제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장년층 이상의 동독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기존체제에 대한 불경으로 이어져 최근 동독지역의 선거에서 공산당의 주신인 민자당이 20% 정도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이는 앞으로 이 지역의 정치판도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통일독일의 더 큰 문제점은 국유화의 출현이다. 통일 후 열악한 사회주의와 경기침체로 적적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하층 계급의 젊은이들이 불만과 게르만 민족주의가 결합된 이들의 행태는 신나치주의 출현이라는 세계의 우려에도 새색이 거두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수성의 유일한 반대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10월 4일자 뉴스위크지에 실린 독일주에서 동독지역이 유한 정책이다. 그리고 서독의 경우처럼 자

본주의 자본에 의한 사회주의의 붕괴와 흡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철저치 못한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난 여름 정부는 김일성 주석 사후 안으로는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정지한 핵사슬을 격동 시켰으며 밖으로는 북-미 3단계 고위급 회담의 결과물인 남북한 수석회담의 지향에 미국과 동의하고 경제협력 남북 분기기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회담의 단골 걸림돌인 뫼비우스의 혼란을 위해 미국과 이 일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서독은 주변 국가들의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 채 통일성 회복과 상호존중을 지켜가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과거 서독의 상황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들이 진행시켜온 통일 과정보다 앞선다는 논의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아니다. 만일 수 년 이내에 우리 정부의 방식대로 통일이 된다면 그 후의 결과는 현재 독일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과감히서서서 분단되어진 것이 아닌 열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서 분단이라는 구실의 통일을 위한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통일을 강요하고 있다. 통일의 절대적 조건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민족적정신의 일치와 이해는 너무나 작아 나는 민족 정서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 방식의 모방과 정책성을 갖지 못한 우리의 통일 방식은 변화해야만 한다.

‘공인’의 자질과 자세 아쉽다

지난 6월 열린 전학대회에서 이태석 씨를 부총학생회장으로 임명된 사회의사는 비록 예전만 원하기는 하나 재원은 충격을 던져 준다. 일 잘 하던 학생회부의 갑작스런 사회화였던 충격은 훨씬 적을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가 사회화까지의 과정과 이유가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학생회가 특별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이 부총 사회의사의 표의는 총학생회와 관련된 8천5백 학생을 대표하는 정회대의 총학생회인지 의의결한다. 총학생회의 따르면 그가 사회를 결성할 때 내정은 전강의 문제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의, 그리고 ‘살벌한 학생운동’ 중에서도 느껴지는 회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살벌한 학생운동’ 중에서도 느껴지는 회의 때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로서는 연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다른 학생운동권의 결속되지 못한 감정적인 비애와 총학생이 추진하는 사안에 대한 노출적인 비호조를 말하는 듯하다. 그것은 아무리 지나친 것이지만 한자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싶지 않다. 또 자기 존재에 대한 의의보다는 다른의 감정적인 말이 자신감부족 사회의 변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총학생회는 이 부총이 작위적인 권력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다. 그가 전학대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회의사를 서면으로 대신했다는 것도 전학대회에 참석한 학생 대표와 8천5백 학생을 무시하는 처사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총학생회가 보인 태도이다. 이 부총의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지난 3월의 전학대회때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그가 직무수행에 있어 단속을 거둘 때 총학생이 한 것은 그에게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전무였다고 보아진다. 물론 그가 사회를 할 때 26대 총학생회에 가해된 타격을 고려해야 할 것은 맞고, 선거를 같이 치루고, 같은 선임을 가진 그와 학생의 사임을 끝까지 함께 하려는 것은 인정상이다. 그러나, 부총은 학자수원장이라는 실무를 최고 책임자이다. 이 부총이 사회의사를 여범방학때부터 처음으로 맡은 것도 공인으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냐고 총학생이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학생대표 기구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인간적인 관례에 따를 학생이 아니라 전직에 직무에 착안해 밟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선거때 26대 총학생회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켰다. 새로운 총학생회에 가는 기대치수도 어느정도 높았다. 학생들의 지지와 기대를 감격과 부담으로 받아들인 총학생이 일관된 속에서도 열린 공동체를 표방하며 모든 사안을 학생들과 함께 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만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이 부총이 전학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의사를 표명한 지금, 총학생이 일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더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후반기에 접어들어 총학생회의 행태는 다가올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전도된 가치, 왜곡된 성인식

단상 최근의 성풍속도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외경 잃은 퇴폐만 넘쳐 사고능력과 비판의식 가르침 절실

요즘 성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성이란 색수열리더에 관한 논의는 아니다. 논의의 초점은 남성과 여성간에 억압과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다각적인 타개책이 모색되고 있음에도 그 전방은 그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분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위험함에 놓여 있으면서도 극도의 이기주의는 남성과 여성간에 억압과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다각적인 타개책이 모색되고 있음에도 그 전방은 그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는 성적기호의 발산이라는 측면과 지나친 성적 기호발산의 억제라는 통제적 측면의 양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형식적이며 법에 의한 해결만을 요구한다.

인간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절리치지 않은채 부패되고 있는 극적 불행의 문화는 신세라는 상표를 달고 무차별하



차별의 결과

일차적인 성의 차별의식의 결과는 성폭력으로 나타난다. 해마다 성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상의 연령층은 갈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매매, 매매, 미혼모의 증가 등 사회적 병리현상의 확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자들의 취업을 는 낮고 설사 취업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와 역할은 남성에 비해 가벼운 것이거나 강대 또한 희박한지 모른다.

연령 구분없는 범죄

우리는 태어날때부터 이미 성적연 연임을 받고 있으며 이제 성인이 되면 성적적 욕망과 대역이 전무한 상태에서 논의는 활발한 편이지만 문제의 본질적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해결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급증하는 성범죄는 남녀 포괄적이고 수범도 다양화되면서 인 관점에서 우리의 신구조

인간을 상품화하는 물질만능풍조 인간성 회복과 존엄성 인식의 대상

성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 및 정치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학문적 안의 전통적 유교주의와 수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외래 서구문명의 충돌, 이태을로기의 대립, 부패의 권력적 침입 등이 존재되어 온 까닭에 물음으로 막히고 생활화하는 가지체제가 본문의 자리잡을 수 없었다.

한쪽에서는 도덕적 회복의 가두 캠페인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퇴폐적인 몸짓의 끝은 이들이 희화화되고 있으며, 일각자들이 정성을 거르는 시공간에 기백만연적 요리만이 절리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세기 동안 너무도 급격한 변화의 외로 속에서 살아왔다. 수백년 동안의 전통적 유교주의와 수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외래 서구문명의 충돌, 이태을로기의 대립, 부패의 권력적 침입 등이 존재되어 온 까닭에 물음으로 막히고 생활화하는 가지체제가 본문의 자리잡을 수 없었다.



“물 빠질 구멍 뚫어”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세기 동안 너무도 급격한 변화의 외로 속에서 살아왔다. 수백년 동안의 전통적 유교주의와 수습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외래 서구문명의 충돌, 이태을로기의 대립, 부패의 권력적 침입 등이 존재되어 온 까닭에 물음으로 막히고 생활화하는 가지체제가 본문의 자리잡을 수 없었다.

게 이 시대를 공경하고 있으며 어느 계층도 그에 대한 반성과 정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환기에 이르러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이 파괴되면 결국은 인간에게도 중량이 타격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타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퇴폐적인 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퇴폐적인 문화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사회의 장래가 타락의 수렁에 빠질 것임을 명각화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무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접근방식과 해결책이 정확하게 제시될 수 없다. 또한 행위자들이 포괄적이고 광범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에 책임 지을 수 없는 난점도 있다. 열, 유에 대한 성취적 사에서 ‘성취욕’의 통제기능 상실의 측면보다는 ‘인간성에 대한 의의결’, 나아가서는 ‘인

간성에 대한 무지’의 차원을 생 각해야 한다.

야타족 만드는 부모

하더라 우리는 비본격적이면 서 살고 있다. 낙태와 미혼모의 문제, 유아 성폭행, 범죄자 없는 남아선호사상 등 우리 자신의 인공에 침을 뱉으며 살아가고 있다. 학교 앞에 개설 불가한 유흥업소들이 버려진 정 일음에 있다가 학원 불꽃으로 걸출된 연수자를 마구잡이로 내보내는 방송, 전소하고 정제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할 부모들이 제멋대로 자신들이 타락으로 만들고 있는 것, 정치인들은 밤 늦도록 거짓말을 쏟아내고, 우왕의 허수아는 날 거품으로 넘쳐나고 있다.

‘사라’의 행면

근거는 미국을 측으로한 상업적 선택과 동향한 영향들이 설립이 수임되고 있으며 이에 한술 더 떠 도색잡지까지 수임, 판매하려는 뻔한 행태를 행하기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인이다. 문제는 입암일에 그러한 도색잡지에 유류, 확산되고 있으며, 컴퓨터와 비디오의 보급은 그러한 행태를 더욱 부채질하고 정신적인 도박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다. 성적연 패착은 즉시적이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도색잡지 사를 면 한다는 결과중심적인 사고에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왜곡된 심상을 던져 줄 수 있다.

적극 구분되는 사태까지 저 달았던 ‘물결은 사탄’의 외형은 현재 이 땅의 성취가치에 대한 향동의 표상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돌아온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치 안에서 야기하기 전에 교육의 한성에서 정적인 지식의 습득과 기계적인 목표보다는 포괄적이고 전 생애에 걸쳐 지성이 될 수 있는 사상의 능력과 비판의식을 향하는 전환을 시행하여 건전한 상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야 한다.

방법은 교육론

인간의 생은 단지 쾌락적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합은 이해와 사랑의 가교이며, 인성에 있어서 자신 이외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존엄성임을 알게 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 처한 하더라도 성은 상품화 될 수 없다. 그리고 성은 대리욕구충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동물적 본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평등한 교육을 계속하려는 안건에는 선연의 말함이 더욱 절실하다. 이는 오늘날이다. 최소한만이라도 남이 잃어 잃은 일은 행하지 않는다는 수기급인(施己及人)의 자제기행을 되기만을 바라고 싶을 뿐이다.

나 호 열 (시인)

해태건설사업본부 보람 사랑 새로움-해태건설이 함께합니다

아직 ‘미래’라고 믿는 것들이 저희에겐 ‘오늘’입니다.

해태건설은 젊기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꿈’만을 꾸며, ‘오늘’을 회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1년만에 400% 이상 성장한 회사, ‘사랑’을 조직보다 귀하게 여기는 회사, 포부와 패기가 넘치는 의욕적인 회사, 건설한 바탕위에서 단단하게 금강강고 있는 회사—바로 해태건설입니다.

해태건설은 ‘인류를 위한 미래건설’ ‘국가를 위한 중요건설’ ‘가정을 위한 환경건설’을 목표로 미래로, 오늘로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